

◇김동조대한건설협



회강원도
회삼척시
협회장은
11일 오후
4시 삼척

시청을 방문, 김양호 시
장에게 회원들이 모은
향토장학금을 기탁.

‘회식비도 선불로’ 자영업자 살리기 묘수 찾는 공직사회

코로나19 극복! 힘내자 강원 **차차차**

“코로나19 극복 위해 회식도 선
불 조기 집행합니다.”

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지역
경제 피해가 심각해지자 공직사회
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
묘수를 짜내고 있다. 강원도청 토
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토목회는
최근 ‘착한 소비 캠페인’을 벌이기
로 뜻을 모았다. 160여명의 회원은

십시일반 뜻을 모아 400만원 상당
의 강원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이를
지역식당에 회식비로 선불할 예정
이다. 당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, 바
쁜 업무 등으로 대규모 회식을 열
기 어렵지만 회식비라도 먼저 지불
하는 것이다. 회식은 차후에 하더
라도 당장 휴·폐업을 걱정해야 하
는 자영업자들을 우선 돕자며 짜낸

회식비 조기집행·외부 식당 이용
자발적 기부·경제활동 적극 동참

아이디어다. 일종의 ‘회식비 조기
집행(?)’인 셈이다. 손장환 도 건설
교통국장은 “자영업자들은 하루하
루가 고통스러운 상황”이라며 “우
선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는 생각
에 회식비를 모았다”고 말했다.

강원도도 가용 가능한 여러 방법
등을 동원하고 있다. 도는 9일부터
당분간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

서 1시간30분으로 연장해 외곽지
역의 식당도 고루 이용할 수 있도
록 배려했다. 구내식당 휴무일도
주 2회(수·금)로 늘렸으며 자발적
모금운동도 시작했다. 도는 이를
통해 평일 하루 지역식당을 이용하
는 직원이 7,000여명에 달할 것으
로 보고있다. 박동주 도 총무행정
관은 “어려운 시기 공직사회가 자
발적 기부 및 적극적인 경제활동에
나서 이웃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
희망한다”고 밝혔다. 최기영기자